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기간	2019.1.13~2019.2.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시설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서브웨이 스타벅스 팀홀튼 등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건물에 있어서 편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저희는 15명이서 한 반이 되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이고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수업을 하는데 쭉 수업만 하는 날도 있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오후에 액티비티를 하러 갑니다. 수업은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토론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숙제는 자주 있긴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구성되어있고 주말마다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컬링(장갑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면 다음날 몸이 쑤시니 조절해가면서 하세요!) 아쿠아리움(시간에 맞춰서 동물들 밥 주기, 4D 영화 상영 등이 있으니 데스크를 참고하세요) 그랜빌 아일랜드(생각보다 작아서 2시간 안에 다 둘러볼 수 있을 거고 끝나고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주변에 go fish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피쉬 앤 칩스를 먹는 것도 좋아요!) 뮤지엄이랑 캐필라노도 재미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밴쿠버는 비가 많이 와서 레인쿠버라고도 불린다지만 제가 갔을 때는 3주 동안 2번 정도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입니다. 저는 숏패딩을 가져갔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롱패딩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해가 4시 30분쯤부터 질 준비를 해서 6시쯤이면 정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 9~10시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개스타운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나오는 곳)은 마약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되도록 가지 않는 걸 추천 드리고 차이나타운도 저녁에 위험하다는 말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ㅇ)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약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홈스테이 맘이랑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ㅇ) 외부식당 (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빵을 먹고 점심으로는 그 전날 먹은 저녁을 싸가고 저녁에는 새로운 요리를 해먹습니다. 생각보다 식사에서 문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침과 점심은 정말 간단하게 먹습니다. 때문에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학교 내에 팀홀튼이나 서브웨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는 한번 먹을 때 20달러 정도 나갑니다. 1월 말쯤에 다인 아웃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45달러 정도에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학교랑 가까운 홈스테이로 배정되어서 5분 거리라서 걸어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버스 한번 타거나 전철 한번 타면 올 수 있는 곳으로 배정받았었습니다. 다만 몇몇은 조금 멀리 배정되어서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21,52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46,561	
기념품	165,541	아이스와인, 초콜릿 등
입장료	74,841	입장료 및 활동비 (페리 자전거 대여 비용 등)
기타	55,152	유심, ETA
합계	2,263,615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 집 정보가 나오면 미리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준비할게 없는지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인형이랑 김이랑 노트를 사 갔는데 좋아하셨습니다.
-유심은 한국에서 미리 사가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21일 동안 쓰는 티모바일로 사서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힘들 수도 있으니 목베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캐리어 24인치랑 20인치 두개랑 백팩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전 60만 원 해갔는데 적당했습니다. 쇼핑을 많이 할 사람들은 더 환전해오기도 하는데 부족한 돈은 카드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화폐에 대해서 미리 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계산하기가 은근 어려워서 미리 숙지해오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요!
-팁은 15퍼센트가 기본적입니다. 10퍼센트나 20퍼센트도 줄 수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이나 쿠키는 london drug이 가장 저렴합니다! 밴쿠버 시티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자주 가실 테니 세일할 때를 노리세요!
-3주동안 밴쿠버 유명한 곳은 다 돌 수 있습니다. 계획을 너무 빡세게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갔던 곳을 또 갈 정도로 가볼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어디 갈지 뼈대는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주 화요일 6시 이후?쯤에는 아트 갤러리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으니 알아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트 갤러리 주변에 아이스 링크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달러만 내면 장비를 빌려서 탈 수 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 동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마법처럼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듣기와 말하기 실력은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봤던 바다보다 3주 동안 본 바다가 더 많은 정도로 바다 구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으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었기에 한국에 돌아가서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가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td><td>
</td></tr>
<tr><td>개스타운</td><td></td><td>그랜빌 아일랜드의 퍼블릭 마켓</td></tr>
<tr><td>
</td><td></td><td> </td></tr>
<tr><td>딥코브</td><td></td><td>컬링장</td></tr>
<tr><td> </td><td></td><td> </td></tr>
<tr><td>킷칠라노 해변</td><td></td><td>빅토리아 아일랜드 국회의사당</td></tr>
</table>